

예정된 감사원 감사 '뒷북' 청구

전남도의회 "자체감사 한계...F1 의문 심층해소" 시민단체, 부실 감사 비난·민간기구 구성할 듯

전남도의회가 F1(포틀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감사원 감사가 다음달부터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를이라는 짧은 기간에 F1 대회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데도 감사가 미흡할 경우 구성기로 했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해 '변좌부성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급기야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실한 감사를 비판하는 한편, 민간기구 구성을 통한 의혹 검증 및 F1 예산 보류 투명 등에 나설 태세다.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25일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 대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의회 감사기능으로는 더 심층적인 부분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사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는 특히 구성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상임위 결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경주장 건설이 지연된 이유와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 등 대회 이후 제기된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지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F1대회 운영법인 KAVO와 전남도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도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 F1대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남도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아울러 "정경조 KAVO 대표가 감사에 출석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한 만큼 예산 심의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합속을 하거나 밤 11시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왜 F1 대회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다. 전남도 F1지원본부와 KAVO간 진실 공방도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겹치면서 부실의 원인을 따지기는 커녕 변죽만 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내놓고도 의혹을 명쾌히 가려내지 못한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제출된 자료마저 공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편들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중노동당은 전남 성명에서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행정사무감사가 '면죄부 행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전문가와 도의원,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진보연대와 전남시민단체협의회·종교단체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F1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감시기구' 구성을 통한 F1 대회 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F1 예산 보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26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의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철조망 설치에 바빠진 접경지역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정부가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육군장병들이 철조망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정은父子, 포격 직전 포병부대 갔다"

해안포 기지 상급부대 시찰설...전날 인근 현지도도 주목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하기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데리고,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해안포 기지의 상급부대를 시찰했다는 설이 나돌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의 골자는 연평도 도발 이전인 21일 김 위원장 부자가 황해남도 강령군에 있는 강령포병대대를 시찰하고 이 부대 예하인 개머리, 무도 해안포기지의 포사격 능력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처음 우리 영토를 대포로 공격한 이번 도발의 심층함을 감안할 때 북한 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사전에 공격계획을 보고받고 허락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공격 임무를 맡은 포병부대까지 내려가 상황을 점검한

것이 사실이라면, 최고 통치자의 개인 정도가 매우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당국이 이런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자원을 가동 중인 것은 사실인 듯하나 아직 결론까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우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최근 전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시찰) 소식'에는 강령포병대대에 관한 것이 없다.

우리 당국은 연평도 도발 전날인 22일 중앙통신이 전한 김 위원장의 황해남도 통연군 현지지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다녀온 곳은 군부대가 아니라 북한식으로 말하면 '경제시설'인 통호오리공장, 흥연바닷가양양사업소, 흥정양양장로 세 곳이었다.

그런데도 연평도 도발과 묶어서 보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 지역과 개머리 해안포기지가 불과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통연군에 내려간 시점도 도발 이전인 '21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통연군 현지지도를 전한 시점은 22일이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하루나 이틀 늦추 보도하는 것이 북한 매체들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은 통연군의 양어 사업소와 양어장 현지지도도 수행한 고위 인사를 가운데 김명국 대장(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총참모부 작전국장이면 육·해·공 작전전의 총괄 책임자인데 왜 양어장 시찰에 따라갔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 시찰이 강령포병대대에 가기 위한 '위장'이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고개를 든다. /연합뉴스

운봉군 市의장 "택시 6부제 전환 찬성"

광주시의회 운봉군 의장은 25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영업용 택시 6부제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영업용 택시 8부제는 택시 운전사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승객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지 못하고 있고, 무력감으로 건전한 가정생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빨리 6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 의장은 "택시 노사와 광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택시 6부제, 택시 총량제, 택시운전사들의 복지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나

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월 선거 당시 영업용 택시 운행 체계를 현행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택시는 총 8234대(76개 법인택시 3481대, 개인택시 4753대)로, 8부제(개인택시는 3부제) 아래에서 하루 62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반면 6부제(개인택시는 3부제) 하에서는 8부제보다 146대가 줄어든 하루 640여대가 운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한 무력도발 규탄 도의회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26일 오전 제 256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긴급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선량한 주민과 군인을 숨지게 한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다.

최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산케이신문 "北, 무수단 미사일 실험 준비중"

북한이 수개월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의 발사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사정거리 3000km)의 발사실험을 통해 실험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함으로써 한

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도발행위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무수단이 최후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개발-협력 관계에 있는 이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中 외교부장 방한 연기

오는 26~27일 방한할 예정이었던 양제중 중국 외교부장이 연기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어젯밤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양 부장의 이번 방한 연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가 동북아 정세의 미묘한 외교현안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북한軍 또 위협

"도발하면 주저없이 물리적 타격" 유엔사 장성급회담 제의도 거부

북한군이 25일 연평도 포격과 관련, "조선 서해가 분쟁 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늘을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면서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는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문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

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통지문은 또 연평도 도발 당일인 23일 우리 군이 서해에서 벌인 훈련에 대해 "철저히 사전 계획된 군사적 도발이며 사실상의 전쟁행위"라면서 "결국 연평도에는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을 가해온 본거

지로 됐고, 우리 군대의 자위적 조치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됐다"고 역시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북한은 25일 전날 유엔군사령부가 제의한 '북한군-유엔사 장성급회담'을 거부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사가 제의한 장성급회담을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장성급회담에 나와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 판단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암을 다스리는 해조과학 후코이단

세계는 왜 후코이단을 주목하는가?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차가버섯, 산삼, 폴리폴리사이드 등은 면역세포를 강화시키거나 그 작용을 돕는 역할에만 그친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후코이단은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아포토시스(Apoptosis: 세포의 자가소멸, 자살)라 한다. 후코이단은 암치료 및 예방에 응용할 수 있는 대체의학의 꽃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본문 중에서)

위암 재발 방지를 위해 먹기 시작한 해조 후코이단 덕분에 위암 전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고 몸상태도 크게 호전되었다.

유방암 유방 적출수술 후, 남아 있는 한쪽 유방에도 암이 전이될까 두려웠는데, 해조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립선암 전립선에 생긴 암이 빠르게 전이되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받긴 후리가 있고, 또 QOL유지를 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선택했다. 그 결과 PSA수치가 기적적으로 낮아졌다.

난소에서 폐, 간으로 전이된 암 난소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해조 후코이단 복용 후 폐암은 사라지고 간암도 많이 호전되었다.

대장암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으나, 해조 후코이단이 지난 아포토시스, 혈관생성 억제, 면역부활작용 덕분에 대장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뇌종양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덜기위해 해조 후코이단을 먹은 것이 최상의 선택. 덕분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종양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다.

암세포만을 골라 자살(아포토시스)로 몰아넣는 후코이단 전 세계 1,000여편의 논문이 증명한 놀라운 기능!

무료주문전화 070-7809-5151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2,400원 본인부담)